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2

절대통치자에서
개혁정치가로, 영·정조
시대

1

.

조선시대의 군주권

정도전은 조선 국가의 기초를 설계한 『조선경국전』(1394, 태조 3년)에서 ‘조선’을 국호로 채택한 이유와 군주의 전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라·백제·고구려(고려)라는 호칭을 오늘날의 국호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신라·백제·고구려는 각각 한 모서리만을 장악했던 통일되지 못한 지역분립 국가였고, 둘째 서로 침탈을 자행한 동질성이 부족한 국가였으며, 셋째 중국 천자의 명을 받지 않아 시대 명분에 어긋나는 자립국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보다 먼저 국가를 건설한 단군과 기자를 군주의 전형으로 삼고 그들이 사용했던 국호 ‘조선’을 그대로 사용함이 옳다.

곧 조선의 군주는 이전 시대의 군주들과 달리 단군과 기자를 받들어 국내적으로는 지역분립성을 타파하여 동질성을 확대해가고, 국제적으로는 중국에 사대의 예를 행함으로써 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조선 군주의 전형. 단군과 기자

조선이 단군을 군주의 전형으로 받든 것은 단군이 중국 역사공동체의 출발인 요임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 역사공동체를 출발시켰고, 중국 천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명을 받은 수명(受命) 군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적인 문화공동체를 출발시킨 주나라 무왕을 가르친 기자도, 조선으로 망명한 후 8조의 가르침과 세상을 다스리는 9가지의 큰 법인 홍범(洪範)을 통해 백성을 가르친 교화(教化) 군주로서 조선 문화공동체를 만든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은 이러한 군주의 권위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단군과 기자를 국가시조로 제사지내 ‘조선’을 계승하는 역사공동체임을 법제화했다. 그래서 세종은 중국의 제후라는 뜻으로 단군과 기자 앞에 붙였던 ‘조선후’를 떼어버리고(1425) 평양에 단군사당을 세웠으며(1429), 세종은 단군 위패를 조선 시조로, 기자 위패를 후조선 시조로 확정하기도 했다(1456). 다시 말해 조선은 중국과 대등한 혈연공동체(단군), 문화공동체(기자), 독자적 생활권(위만)을 가진 역사공동체이며, 조선의 군주는 하늘의 뜻을 받아 교화의 권위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통치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 계승의식은 삼국시대 이후 지속된 지역간 대립의식을 없애고 국가 통합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신라와 고려에 의한 두 차례의 대통일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은 신라를, 호남지역은 백제를, 중부 이북지역은 고구려를 계승할 것을 내세우며 싸워오던 지방색과 지역분립적 역사의식이 비로소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사대부들이 대부분 영남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이후 고구려·신라·백제의 부활을 내세운 대대적인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2 군주. 사대부 신하를 통해서 수양되는 자

조선이 기자를 전형으로 삼은 교화군주는 유교의 정치이론, 곧 수기치인(修己治人)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기 자신을 닦고 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이 원칙은 학문과 도덕을 닦아야 관료가 될 수 있는 신하들뿐만 아니라 혈통에 의거하여 통치자가 되는 군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신하의 가장 큰 임무는 학문과 도덕을 닦는 군주가 되도록 돕는 일이었다. 곧 군주는 이미 수양을 완성한 사대부 신하에 의해서 수양되는 자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군주는 사대부와 함께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군신공치론(君臣共治論)’이 나올 수 있었다. 동시에 도덕적 권위로 통치하는 덕치(德治)가 권력과 법의 권위로 통치하는 법치(法治)보다 우수하다는 기본원칙도 생겨났다.

또한 천명을 받드는 교화군주라는 권위는 민본(民本), 위민(爲民)에 근거한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군주는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民本], 백성을 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 [爲民]을 보일 때만 교화군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의 모든 군주들의 행장은 군주의 민본·위민 정신에 따른 민심과 신하들의 동향을 주제로 서술되었다. 국가의 공식기록인 『실록』에 나오는 모 임금에 대한 평가 중에서 “임금은 (주변 신하들에게만 베풀고) 일반 백성에게는 실제로 베풀 것이 없건만, 일반 백성들은 그래도 스스로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렇듯 백성을 기준으로 군주를 평가하는 방식은 실은 조선의 건국이 ‘하늘이 백성의 뜻을 빌려서 왕씨 왕조를 이씨 왕조로 바꾸었다’는 역성혁명이었다는 데서도 연유된 것이다.

조선이 또 하나의 기동으로 삼은 정치원칙은 주자성리학의 정명론(正名論)이다. 모든 사업의 명분(名分)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정명론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군주는 이 세상의 풍속과 교화를 위해서 지위를 가진 인간의 체험[爵], 나이를 먹은 인간의 체험[齒], 도덕을 지키는 군자의 체험[德], 세상이 향해가는 도리를 아는 성인의 체험[道], 하늘의 뜻이 표현되는 백성들 마음 속의 체험

[天命, 民心]의 순서로 중요성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세상 체함의 수준을 존중하고 깨닫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대부와 백성의 관계

또 한편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성리학은 ‘사대부는 농민에서 나온다’, ‘사대부와 농민은 상부상조하는 관계’라는 표방을 그 기본정신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배층의 권위가 혈통이나 물리력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학문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배층은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었다는 의미인 사대부, 양반 또는 관료를 배출한 집안이라는 의미인 사족(士族)이라 불리는 데 자부심을 가졌다.

실제 조선에서는 이들 사대부 계층이 대폭 확대되면서 피지배층인 농민과 같은 향촌에서 섞여 살게 되었다. 지배계급이 보다 서민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바로 이들이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문예부흥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8도라는 지방행정체계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노비에게도 토지사유권을 보장하는 법적인 시책들을 추진한 것이다.

4 유교적 통치에서의 군주 권력은 절대적이었는가?

군주의 권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차적으로는 군대통수권에 있다. 조선조에서도 군주의 명령서와 함께 궁궐에 보관되어 있는 표신이 있어야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군주는 고려 이전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다. 바로 하늘의 명을 받드는 오랜 역사공동체의 통치자로서, 법과 도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군주일 때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을 전후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생산자인 백성들의 지위를 높였고, 성리학을 통치철학으로 수용함으로써 백성의 대표자인 신하들의 권위를 상승시켰다.

곧 군주전제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하들은 군주권의 잘못된 행사를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리하여 조선에는 중국 명나라와 같은 강력한 군주전제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군주의 또다른 힘은 관료임명권에서 나왔다. 모든 관료는 군주의 교지로 임명되었다. 특히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고위관료는 3인의 후보자 중에서 군주가 직접 권점을 찍어 1인을 선발했다. 후보자는 보통 담당 재상(宰相, 2품 이상의 고위관료)이 올리게 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직책은 사전에 국왕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군주는 재상들이 자신의 뜻을 받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자 명단을 받지 않은 채 직접 친필로 임명장을 내려보내 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군주의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사례다.

군주의 최종 결정이 곧 국가의 법령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만일 군주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료들은 명령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명령을 글로써 기록하기를 거부하거나, 문서로 만들어진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군주의 권한은 군주의 장·단점과 특성에 따라서 통치 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조선초기 군주 중에서 태종과 세조는 군주가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국가제도 개혁을 선호했기 때문에 재상권을 약화시키고 행정부서를 직접 관할했다. 반면에 세종과 성종은 임금과 신하가 함께 통치한다는 정신을 보다 존중했기 때문에, 재상 또는 학술관료와의 조화를 통한 학문정치를 선호했다.

조선 후기에 왕위계승권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전통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시대에 맞는 자기 식 사업을 추진해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5

강력한 통치권을 지향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 군주

이 책에서 서술되는 17세기 초반 병자호란 직후 3인의 군주에 이르러 군주의 임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

8 영조와 정조의 나라

천자의 명을 받들어야 하는 조선 군주의 임무가, 사대 대상국인 명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대신 그 임무는 우리가 지켜온 진정한 중국문화를 강화함으로써 조선을 중화국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여진족 국가[金]와 대결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완성한 주자의 성리학을 존중할 것, 단종의 복위와 황단(皇壇, 명황제의 제사를 받들)을 건립하는 등 역사 재평가사업을 통해 예의 있는 국가를 건설할 것, 중화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북벌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이 강조되었다. 가령 단종의 경우 17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묘호가 주어졌는데 단종의 ‘단(端)’은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이었다.

즉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청나라식 패권적 대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조선식의 문화적 대국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이를 조선중화주의라 한다. 이후 조선왕조가 본받으려 한 국가통치 모델은 중국 통일 국가인 한·당·북송·명 체제에서 여진족과 대결한 남송체제로 변화했다.

숙종은 이러한 변화를 국시, 곧 통치 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주권 우위의 정치체제를 건설하려 했다. 여기에서 국시를 뒷받침하는 붕당의 일당독재를 인정하는 일진일퇴의 환국정치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영조와 정조는 북벌론 및 조선중화주의에 입각한 문화국가 건설을 존중하긴 했다. 하지만 이를 국시 내지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모든 사대부와 함께하는 군주, 나아가 모든 백성과 함께 사는 군주라는 보다 원칙적이고 전통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군주권이 우위에 서는 정치체제를 건설하려 했다. 여기에서 붕당보다는 인물과 백성에 우위를 두는 탕평정치 방식이 나타났다. 그래서 군주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재상의 권한을 정점으로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중앙집권 관료제가 추진되었고, 군주가 직접 일반 백성과 만남으로써 거리를 좁혀나가는 교화 시책들, 이른바 ‘대동(大同)’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정조 시대가 되면, 성공하지는 못

했을 망정 과감한 노비제 개혁, 군제개혁, 세금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찬사가 나올 정도가 되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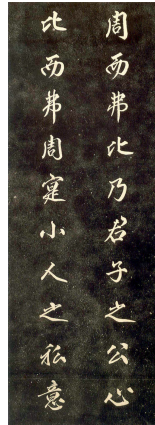
사도세자, 그 죽음의 해석

조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세자로 단연 손꼽히는 인물이 사도세자다.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입구에는 8세가 된 사도세자의 입학울 기념하여 세운 탕평비가 있다. 하지만 이 탕평비는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으로 기념비가 아닌 추모비가 되어버렸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정신병 때문이라고 알려져왔다. 지금까지 『한중록』의 기록대로 그렇게 표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조실록』에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차라리 미쳐서 발광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5월 13일 『영조실록』의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정문으로 들어가 좌측에 있는 탕평비 탁본. 1742년(영조 18) 영조가 친필로 써서 세운 비석으로 사도세자의 입학울 기념하여 세웠다.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성균관 학생들에게 당쟁에 휘말리지 말도록 부탁한 내용이 적혀 있다.

나경언이 고변한 후부터 임금이 폐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유언비어가 안(세자의 생모 선희궁을 말함)에서부터 일어나서 임금의 마음이 놀랐다.

임금이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하교하기를, “여러 신하들 역시 신(神)의 말을 들었는가? 정성왕후(세자의 법적 모친)의 신령이 정녕 나에게 이르기를, 변란이 호흡 사이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궁궐문을 굳게 막도록 하고, 궁의 담쪽을 향하여 칼을 뽑아 들어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조아린 세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세자가 자결하고자 했는데 신하들이 말렸다. 임금이 이어서 폐하여 서인을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드디어 세자를 (뒤주에) 깊이 가두라고 명하였는데, 세손(세자의 아들. 후의 정조)이 황급히 들어왔다. 임금이 혜경궁·왕손 모두 좌의정 홍봉한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이 때에 밤이 이미 반이 지났다.

1 재해석되어야 할 ‘뒤주 속의 죽음’

사도세자는 1735년(영조 11)에 태어나서 1762년(영조 39), 28세를 일기로 뒤주에 갇혀 죽었다.

영조는 자신의 뒤를 이을 왕세자로서 대리청정 중이던 사도세자에게 자살을 명하였다가, 주위 신하들이 이를 만류하자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였다. 이 사건은 조선왕조 사상 왕위계승권자와 국왕 사이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태에 해당한다.

영조와 궁녀 출신 선희궁(宣喜宮, 곧 영빈 이씨)의 아들로 태어난 사도세자는 천성이 어질고 너그러웠다고 한다.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장난감 무기를 가지고 전쟁놀이를 즐겨할 만큼 어려서부터 풍부한 무사적 기질을 보였다고 한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고도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다는 부왕을 닮아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자라면서는 칼쓰기와 활쏘기를 위시한 기예에 특히 뛰어났고, 유교경전보다는 점복을 비롯한 잡서들을 즐겨 읽곤 하였다. 부왕의 강한 성격에 눌러 지내서인지 소심한 측면이 있었지만,



사도세자(잠치)와 혜경궁 홍씨(혜경왕후)를 합장한 응릉(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소재)
사도세자의 죽음은 노론·소론 당쟁의 희생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죽음 직전 3개월에 걸친 평양행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뒤주에 갇혀 죽은 이유가 밝혀질 것이다.

그래도 우스갯소리를 곧잘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15세 이전에는 부왕이 능행 등의 바깥나들이에 데려가지 않아서 궁궐 안에서만 갇혀 지냈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 25) 15세부터 대리청정을 했다. 15세밖에 안 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것은 영조가 체력이 약해져서 정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지는 않다. 영조의 의도는 탕평정치의 규모를 빨리 익히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이는 대리청정 중인 사도세자에게 늘상 당론을 타파해야 한다는 탕평의 뜻을 가르친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리청정이 화근이 되어, 결국에는 ‘뒤주 속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선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기간에 일어난 중요한 정치적 사단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기간의 중요한 사건으로는 세금수취 제도를 개혁한 균역법의 실시와 소론 강경파를 제거해버린 을해옥사

를 들 수 있다. 또한 초기 완론탕평을 주도한 김재로·조현명 같은 대신들이 물러나고, 정유량·김상로·홍봉한 같은 외척당이 주도하는 정권으로 정계개편이 진행되면서, 이천보·유척기·이종성을 주축으로 청류당 정파가 새로 형성되어 외척당에 대한 정치적 변화도 중요하다.

기록을 검토해보면, 균역법 추진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을해옥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으로 나뉘지만, 사도세자의 입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당시 정국을 주도한 외척당 계열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반면 외척당을 견제한 청류당 계열 대신들에게 많이 의지했다. 곧 정치적으로는 외척당과의 갈등이 비극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성품이 다른 것도 화근이라고 지적했다. 영조는 세밀하고 민첩한 데 비해, 사도세자는 말이 적고 민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조가 물어볼 때 머뭇거리는 일이 많았고, 자기 견해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해 영조가 늘상 답답하게 여겼다고 한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스타일도 달랐다. 사도세자는 말솜씨와 얼굴빛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 하지 않아 과묵하고 위엄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부왕인 영조보다 사도세자를 더 어려워했다는 것이다. 사도세자의 이런 성격은 대리청정 중에 정사를 처리하면서 영조와 여러 가지 껄끄러운 문제들을 일으키는 소지로 작용하였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대체로 비변사의 논의를 거쳐 처리했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언제나 영조의 재가를 얻어서 결정했다. 그러므로 이런 데서 사단이 발생할 여지는 적다.

문제는 당론에 관계된 상소문 처리에서부터 벌어진 것 같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는 불호령이 떨어졌고, 세자에 대한 영조의 꾸중과 격노가 심했다고 한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후 3--4년은 그런 대로 무사히 넘어갔다. 그러다 정조가 출생하던 1752년 겨울, 사도세자는 당론을 잘못 처리했다 하여, 홍역이라는 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눈 위에 엎드려 대죄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영조가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선위소동을 잇달아 일으켜 또다시 며칠 동안 얼음 위에서 석고대죄까지 해야 했다. 그 결과 사도세자는 정신병을 얻었고, 이것이 환병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도세자는 부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데 맛을 들여 행동이 난폭하게 거칠어졌고, 이윽고 법적 어머니인 경성왕후와 할머니 인원왕후가 사망한 다음해인 1758년에는 세자폐위 전교가 내려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 폐위 전교는 당시 도승지였던 남인 채제공이 끝까지 만류하여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로부터 4년 뒤인 1761년 봄, 석 달에 걸친 평안도 여행이 빌미가 되어 사도세자는 다음해에 부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2 사도세자의 비행 10여 조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사건은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惠敬宮) 홍씨가 『한중록』에 사건의 전말을 기록해놓았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이 사건은 보통 혜경궁의 기록을 따라서 임오화변(壬午禍變)이라고 불린다.

사건은 한 달 전 나경언이 역적모의를 고발하는 고변의 형식을 빌려 영조에게 세자의 비행 10여 조를 올린 데서 비롯되었다. 나경언은 당시 액정서의 별감인 나상언의 형이었다. 액정서는 군주의 명령 전달과 관련된 잡다한 업무, 이를테면 붓과 벼루를 공급하거나 열쇠를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곧 왕실 내부의 사안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직책이었다.